

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업계 협조 당부

-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제·국내 석유제품 가격현황 점검 -
- 국내 석유가격 안정시까지 총력 대응체계 유지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12.10일(수) 업계, 유관기관과 함께 「석유시장 점검회의」를 개최*하여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였다.

* 참석기관: 산업부, 정유4사(SK에너지, GS칼텍스, S-OIL, 현대오일뱅크), 알뜰공급 3사(석유공사, 농협, 도로공사), 대한석유협회, 한국석유유통협회, 한국주유소협회 등

지난 한달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파른 속도로 인상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2월 들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. 다만,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일부 제품의 국제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는*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.

* 휘발유 국제가격(\$/배럴) : (11.2주) 80.2 → (11.3주) 78.2 → (11.4주) 77.7 → (12.1주) 79.4

국내 석유제품의 높은 가격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,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정유·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,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앞으로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, 기재부·국토부·공정위·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*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
* 가격표시판의 판매가격과 보고가격간의 일치 여부,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, 보조금 부정수급 등 종합 점검

또한, 산업부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픈넷 모바일앱의 고도화*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* 예시: 차량 모델별 연비, 이동거리, 소요시간, 주유소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맞춤형 주유소 정보 제공서비스 도입('26년 1분기) 등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한서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성 (044-203-5223)